

# 암병원에서의 암환자 실태조사

방사선의학연구소 부속병원

안 난 이

오늘 날 암이라고 하면 막연히 불치의 병으로만 알고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암이라는 진단을 조기에 받아 조기에 치료하면 그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겠고 더우기 우리 국민에게 널리 인식시켜야 될줄 안다. 본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대부분이 조기진단을 받지 못했거나 혹은 조기에 진단을 받았어도 이것이 불치의 병으로만 알고 방사선을 이용한 치료법이나 그의 수술 기타 화학요법을 몰랐거나 믿지 않았던 데에서 결국 커다란 불행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한약으로 암을 고친다는 터무니 없는 말에 유혹되어 병을 더 악화시킨 다음에야 본원을 찾아오는 환자도 많다.

이러한 일들을 실제로 알아 보고싶어 본 병원 입원 환자 중 적어도 방사선치료를 15회 이상 받은 환자 35명을 그 대상으로 다음 몇가지를 조사해 보았다.

(조사 기간은 1970년 6월부터 1970년 9월까지)

질문 1 : 입원 전에 한약 복용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 : 19명      없다 : 16명

있다 19명의 한약 복용 기간은 최소 2주에서 최고 6개월로 평균 2개월이었다.

(조사 대상자는 남자 8명, 여자 27명으로 본원 입원환자 남자대 여자 비율은 약 5대 1의 비율에 비슷하게 잡은 것이다)

질문 2 : 학벌은 어느정도입니까?

없다 : 11명      국졸 : 17명  
중졸 : 3명      고졸 : 3명

대졸 : 1명      기타 : 0명

(이상은 각 학교별 증표도 포함)

역시 Low Class에서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다. 이들의 연령별 분포를 보던

11세~20세 : 1명      21세~30세 : 0명  
31세~40세 : 5명      41세~50세 : 4명  
51세~60세 : 10명  
61세~70세 이상 : 5명

으로 30대에서 50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막에 나오는 통계표에서 연령별 분포를 더 정확히 볼 수 있음)

질문 3 : 암에 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① 전연 없다      16명

※② 매스콤을 통해서 (신문, 잡지, 방송, 광고, 등)      1명

③ 주위사람들을 통해서      10명

④ 병원을 방문해서      6명

※⑤ 의료인을 통해서 (의사, 약사, 간호원, 한의사, 기타 의료종사자)      2명

※표에서 보여준 바 우리들의 사명이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했다.

질문 4 : 암을 어떠한 병으로 알고 있습니까?

① 잘모른다      14명

② 불치의 병으로      10명

※③ 조기발견 되면 치료 효과가 있다고      11명

※④ 한약으로 치유될 수 있다고      0명

입원하기 전까지 이들이 암에 대한 지식이란 들어서 조금은 알고 있었으나 막연했던 것이 질

분 4 : ※표에서 보여준 바 이들이 한약으로 치유될 수 없다는 것과 조기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조금이나마 흐뭇했다.

질문 5 : 암이란 진단을 받게 된 동기는?

- ① 정기적인 진찰을 받다가 4명
  - ② 이상한 증세가 있어 병원에 왔다가 27명
  - ③ 주위에 암진단을 받은 사람이 있어 병원에 있다가 1명
  - ④ 주위에서 진찰을 받아 보라고 권유해서 (증상은 없었음) 3명
- (이상한 증상이 있었다면 간단히 기록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배개 종합해서 기록하면 다음과 같다.

이상한 병우리가 크게 만져졌다. 출혈이 있었다. 분비물이 심하고 냄새가 몹시 고약했다. 통증이 심했다. 체중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식욕이 없어졌다. 얼굴색이 좋지 않아졌다. 등의 거위가 암증세 중 하나를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암병원에 관해서 물어봤다.

질문 6 : 암병원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 ① 전연 몰랐다 14명
- ② 매스컴(신문, 잡지, 방송 등)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 3명
- ③ 주위사람들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 4명
- ④ 의료인(의사, 간호원, 약사, 한의사, 의료종사자 등)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 4명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몰라서 혹은 알면서도 “설마”하고 병원 방문을 소홀히 한 데에서 조기 진단의 기회를 놓치게 되고 만다. 그러나 그외 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암의 초기에는 그 증세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기적인 진찰을 받는 것이 가장 조기진단의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겠다.

암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그 위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뚜렷한 증세가 동반한다고 한다.

위 치 증 세  
자궁 냉이 많아 냄새가 나며 피가 섞이게

되고, 접촉시에 출혈, 출혈로 인한 빈혈, 체중감소, 암이 진행되었을 때 동통이 심하다.

위 소화불량, 위부위의 불쾌감 및 압박감, 동통, 구토, 식욕감퇴

악성입과종 괴로감, 목, 겨드랑이, 허벅다리, 서혜부의 멍울, 극소동통및 압통, 뼈로 미열, 식욕감퇴, 체중감소

간 소화장애, 우측상복부의 불쾌감및 통증을 호소하며 간이 커진다. 때로는 열과 황달을 동반한다.

피부 비듬같은 점, 잘 낫지않는 상처, 사마귀, 점, 반문의 크기나 색깔의 변화  
유방 아프지 않는 유방의 멍울, 진행되던 두과 겨드랑이에도 멍울이 생긴다. 유방피부의 위축.

구강 창백한 반점, 멍울, 딱지 또는 반점  
결장(직장) 복통, 설사, 깨소팽창, 변비, 혈변, 식욕감퇴, 전신쇠약,

후두 2주 이상 목이 쉰다.

폐 울리는 거친기침, 호흡곤란, 피쉬인담, 계속적인 가슬과 어깨의 통증, 식욕감퇴, 전신쇠약

식도 연하곤란, 음식의 통과장애, 통증, 체중감소,

신장, 방광 혈뇨 배뇨곤란, 배뇨회수의 증가  
전립선, 배뇨회수의 증가(특히 야간), 배뇨력약화, 방광장애, 통증,

이러한 경우 물론 암위치에 따라 그 치료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수술, 방사선요법, 화학요법, 혹은 홀몬요법 등이 적용된다.

“본 연구소의 암조기진단 사업”

위에서 말했듯이 암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미 완치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거나 환자 스스로가 치료를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연간 암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4~5만명에 달하며 국민 사망율의 2-3위를 차지한다고 한다. 더욱이 그 연령이 30~50대 활동기의 연령층으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은 등감한다.

이와 같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든 연구소에

서는 암도 조기에 발견하면 치유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것을 널리 제동 시킴과 동시에 대암사업의 일환으로 부인암조기검진사업에 착수 했던 것이라고 한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사업은 전국의 저소득층 부인을 대상으로 암질환 중 발견이 용이하고 치료효과가 우수한 부인암을 조기발견, 조기치료하게 하기위해 제 1단계로 1967년 7월에 본 연구소에 검진사업본부를 설치하고 서울(서울의대부속병원), 대구(대구의대부속병원), 광주(전남의대부속병원)에 지구본부를 두었고, 그 후 1970년 4월에 대전(충남의대부속병원), 부산(부산의대부속병원), 지구본부를 증설 운영하여 본 사업을 확장하였다. 1970년 7월에는 각 지구본부에 이동검진차를 배치하여

본부는 강원도  
 서울지구본부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대구지구본부는 경상북도  
 광주지구본부는 전라남도과 제주도

부산지구본부는 부산직할시와 경상남도  
 대전지구본부는 충청남도 지역을 각각 순회검진하게 하였다. 이는 고정검진반, 세포검진반 및 이동검진반으로 편성되어 각 검진반에는 산부인과 또는 세포검진전문회가 반장이 되어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연구소의 통계에 의하면 의외로 피검사자들의 협조가 잘되어 1969년에는 약 8천명으로 검진 목표의 80%를 달성했고 1970년에는 약 3만 9천명으로 검진목표의 130%에 달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1969년~1970년의 검진 결과를 분석하면 총검진자 중 899명(1.92%)이 세밀검사를 요하는 의증, 413명(0.88%)이 암환자로 밝혀 졌다고 한다.

부인암조기검진사업에 있어서 1969년 7월 1일~1970년 12월 31일 까지의 연령별 및 지구별 검진결과를 보면 다음표 1, 2.와 같다.

〈표 1〉 연 령 별 검 진 결 과

연령별	구분 수 자 수	진 단 결 과										연령별 비율 (%)	비 고 Class IV, V의 %
		Class 1		Class 2		Class 3		Class 4		Class 5			
		인 원	%	인 원	%	인 원	%	인 원	%	인 원	%		
20~24	1,856	1,404		444		7	0.41	1		—		4.0	0.1
25~29	6,822	5,143		1,638		38	0.6	1		2		14.5	0.04
30~34	12,114	8,445		3,464		181	1.5	18		6		25.8	0.2
35~39	12,200	8,167		3,727		222	1.8	54		30		26.0	0.7
40~44	7,914	5,031		2,597		199	2.5	53		34		16.9	1.1
45~49	3,462	2,162		1,092		124	3.6	44		40		7.4	2.5
50~54	1,454	832		498		70	4.8	34		20		3.1	3.7
55~59	652	302		270		40	6.1	22		18		1.4	6.1
60세이상	422	193		175		18	4.2	18		18		0.9	8.5
합 계	46,896	31,679	67.6	13,905	29.6	899	1.92	245	0.52	168	0.36		

현재 본연구소에서는 새로 도입된 Scintillation Camera를 이용하여 간암집단검진(무료)을 실

시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위암 및 유방암 등을 집단검진 할 예정이다.

<표 2>

지 역 별 검 진 결 과

항 목 지구별	검진구분	총 계	검진결과						비고
			I, II	백분비	III	백분비	IV, V	백분비	
본 부	고정	—	—	—	—	—	—	—	
	이동	2,430	2,412	99.25	9	0.38	9	0.37	
	계	2,430	2,412	99.25	9	0.38	9	0.37	
서 울	고정	4,901	4,770	97.32	90	1.38	41	0.85	
	이동	2,585	2,535	98.06	46	1.77	4	0.17	
	계	7,486	7,305	97.58	136	1.81	45	0.61	
대 구	고정	9,181	8,903	96.97	119	1.29	159	1.74	
	이동	6,261	6,235	99.58	17	0.27	9	0.15	
	계	15,442	15,138	98.03	136	0.88	168	1.09	
광 주	고정	8,893	8,446	94.97	305	3.42	142	1.61	
	이동	3,267	3,192	97.70	72	2.20	3	1.00	
	계	12,160	11,638	95.70	377	2.86	145	1.44	
부 산	고정	1,283	1,208	94.15	62	5.13	13	0.72	
	이동	4,562	4,491	98.44	64	1.40	7	0.16	
	계	5,845	5,699	97.50	126	2.15	20	0.35	
대 전	고정	1,805	1,753	97.11	35	1.93	17	0.96	
	이동	1,728	1,639	94.84	80	4.62	9	0.54	
	계	3,533	3,392	96.00	115	3.25	26	0.75	
계	고정	26,063	25,080	96.22	611	2.34	372	1.44	
	이동	20,833	20,504	98.42	288	1.38	41	0.20	
	계	46,896	45,584	97.20	899	1.91	143	0.88	



Virginia Henderson 저

이 승 희 역

간 호 의 기 본 원 칙

대한간호협회출판부발행

값 200 원